

# 농어촌 6차산업화 추진전략과 금융지원 방안



2019.1

# 목차

I. 6차산업의 개념 및 기대효과 .....	1
II. 왜 6차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	2
III. 해외사례 : 일본의 6차산업화 .....	4
1.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2.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성과	
IV.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 추진 동향 .....	6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실태	
2. 정부의 금융 지원	
V. 지역별 비즈니스 모델 .....	9
VI. 시사점 .....	12
1. 정책 제언	
2. 금융기관 제언	
참고/인터뷰 .....	16
[참고1] 6차산업의 세부 유형	
[참고2] 농식품부 농어촌 보조금 지원관련 예산지출 계획	
[참고3] 인적여건 : 귀농, 귀촌, 귀어 관련 통계	
[참고4] 특화산업 : 지역/산업별 입지계수	
[참고5] 지역특성 : 지역/산업별 취업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율	
[참고6] 시장여건 : 산업별 지역내/타지역 생산유발계수	
[참고7] 농공상융합기업 개념 및 지정 현황	
[참고8] 일본의 6차산업화 2.0	

※ 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이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1. 6차산업의 개념 및 기대효과

## □ (개념) 6차산업\*이란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 서비스 3차산업을 융복합한 산업

\* 一國의 산업구조는 경제수준의 선형 발전논리에 근거해 1차, 2차, 3차, 4차산업으로 발전하지만, 농림어업의 6차산업은 기존의 산업발전론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1차×2차×3차=6차’라는 직관화하기 용이해 활용1)

- (유형) 6차산업의 유형은 ‘1차×2차’, 그리고 ‘1차×3차’를 결합하는 단일결합형과, ‘1차×2차×3차’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형으로 구분
  - 6차산업의 정책적 의미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결합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1차산업을 포함한 모든 결합 형태를 6차산업의 유형으로 간주
    - ☞ 기타 구체적인 수익모델 및 사업추진체제에 따른 유형구분은 참고1(p16)



출처 : 6차산업 창업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 □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소득안정 및 향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기대
- (소득안정) 1차산업 특유의 수익 불확실성과 계절성을 탈피하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
- (소득향상) 2차, 3차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 가치가 없는 등외품이나 부산물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1) 今村奈良臣(도쿄대학교 명예교수, 1934生) 교수가 1990년대 처음으로 제창한 개념

## II. 왜 6차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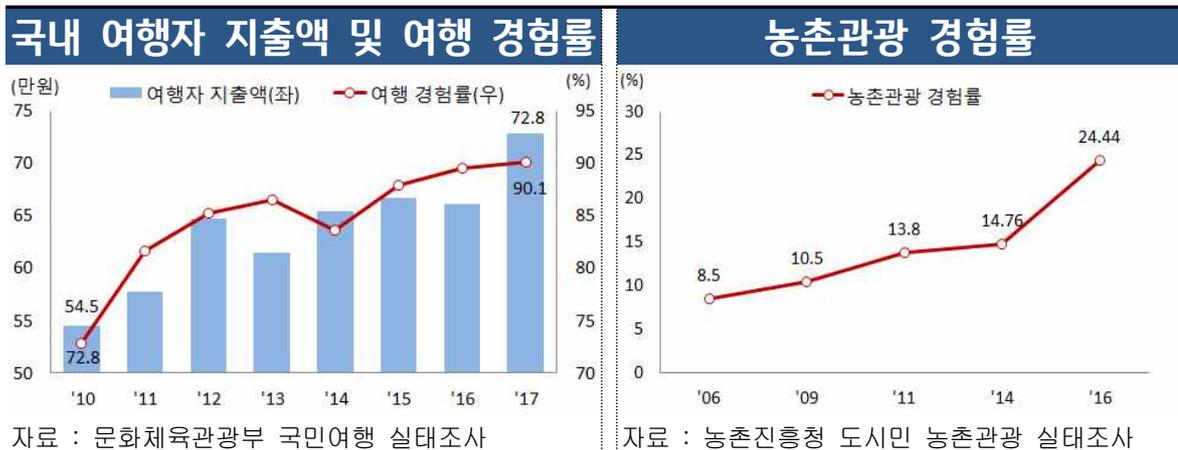
### □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활동과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 (여행)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 여행 경험률\*이 90%를 초과했으며, 여행자 1인당 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

\* 15세 이상 국민(약 4,495만명) 중 최소 1회 이상 여행을 경험한 인구 비율

- 일상탈출과 휴식을 위해 농촌을 관광지로 선택하는 여행자 증가
- 다만 농식품 소비와 체험관광 등 소비로의 연계는 아직 미진한 상황

※ 농촌관광中 주된 활동(%) : 자연명승/풍경감상(29.8), 휴식휴양(28.9), 지역음식/맛집 체험(12.2), 역사유적지방문(7.0), 테마파크방문(2.2), 레저/스포츠(2.8), 농업체험(2.8), 농촌생활문화체험(3.7), 생태체험(2.8), 지역축제참가(4.7), 농특산물구입(2.6)



- (식품) 믿을 수 있는 좋은 먹거리와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며, 농산품 직거래 상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2년간 식품산업 연평균 매출 4.8% 증가, 특히 건강 기능성식품 매출은 연평균 14.2% 증가(금액기준, 물량기준은 18.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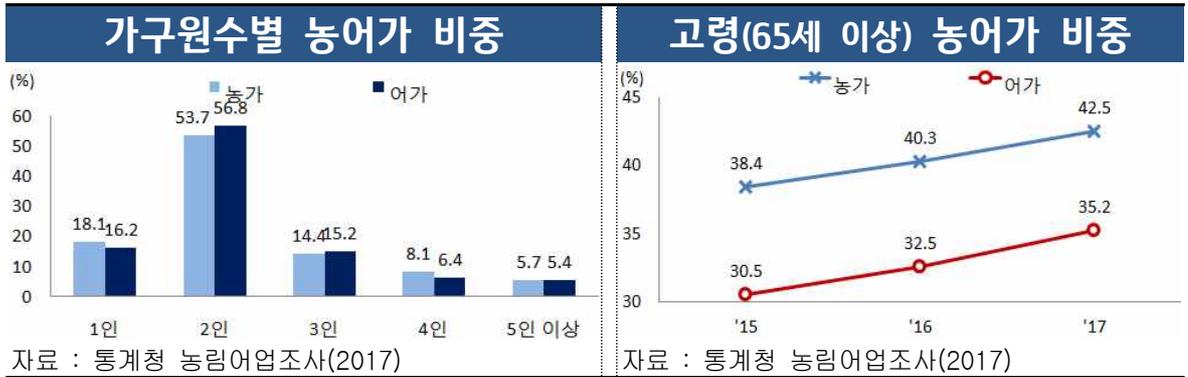
### □ 쇠퇴의 길을 걷던 농림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태동

- 산업구조 변화로 농림수산업이 사양화되고, 농어촌은 고령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 '14년 기준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농어가 인구비중도 감소 ※ 농어촌 인구비중(%) : 6.2('10) → 5.0('15) → 4.7('17)
- (소규모/고령화)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부부단위의 2인 가구가 과반이며 고령(농가 평균 67.0세, 어가 평균 63.7세)의 농어가수가 확대

< 우리나라 산업구조(산출률 기준, %) >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농림수산업	5.2	2.7	1.7	1.6
광제조업	50.1	46.7	48.6	47.9
인프라/건설	12.3	9.4	9.0	9.0
서비스업	32.4	41.2	40.7	41.5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그러나, 최근 제조업 경기침체 등으로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가 마련

※ 제조업 취업자수(천명) : 4,307('13) → 4,604('15) → 4,566('17) → 4,490('18.11)

※ 농림어업 취업자수(천명) : 1,513('13) → 1,337('15) → 1,279('17) → 1,438('18.11)

**□ 6차산업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농업을 양성할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밑거름**

- 6차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레몬마켓2)'을 '피치마켓3)'으로 변화시키는 Key가 될 것
  - 생산자-소비자간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유기농 생산, 친환경 축산 등 양질의 다양한 제품 생산 가능
-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인구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

**□ 금융기관도 6차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

- 6차산업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융복합화된 산업
- ⇒ 농어촌 관련 금융지원이므로 은행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

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걸으려는 좋아 보이지만 저렴한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되며 역선택이 만연한 시장

3)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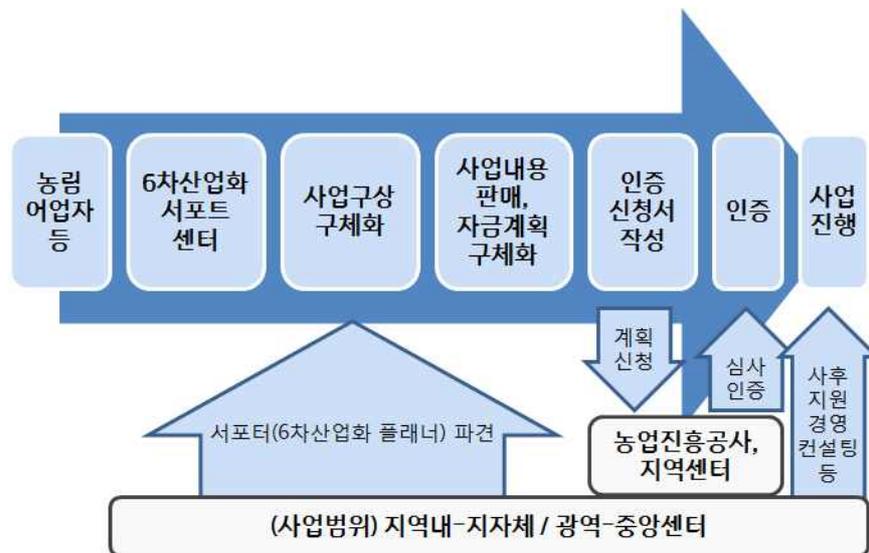
### III. 해외사례 : 일본의 6차산업화

#### 1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 □ '11.3월부터 '6차산업화법'(약칭)'에 의거해 관련 시책을 시행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의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6차산업화 관련 핵심 지원 사업으로 '종합화 사업계획'과 '농림어업 성장 사업화 펀드(이하 농림어업펀드, A-Five)'가 있음
- (종합화 사업계획) 농림어업자(개인/법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상품 개발, 판매루트 개발,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원하는 것이 특징



[6차산업화법에 근거한 종합화 사업계획 인증 과정]

- (농림어업펀드) 정부·민간이 공동출자한 펀드로 6차산업자를 대상으로 투·융자 및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농림어업자의 출자금이 50% 이상인 종합화 사업계획 인증업체
  - (특징) 출자(펀드)형 지원은 사업요건이 엄격한 보증서 발급이나 담보·보증에 필요한 용자와는 달리 자본금 형태로 지원금이 편입되어 사업계획 자유도가 높고, 담보·보증에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짐
  - (투자실적) '13.9월 첫 출자 이후 '18.10월 현재 135건, 123.9억엔 투자

## 2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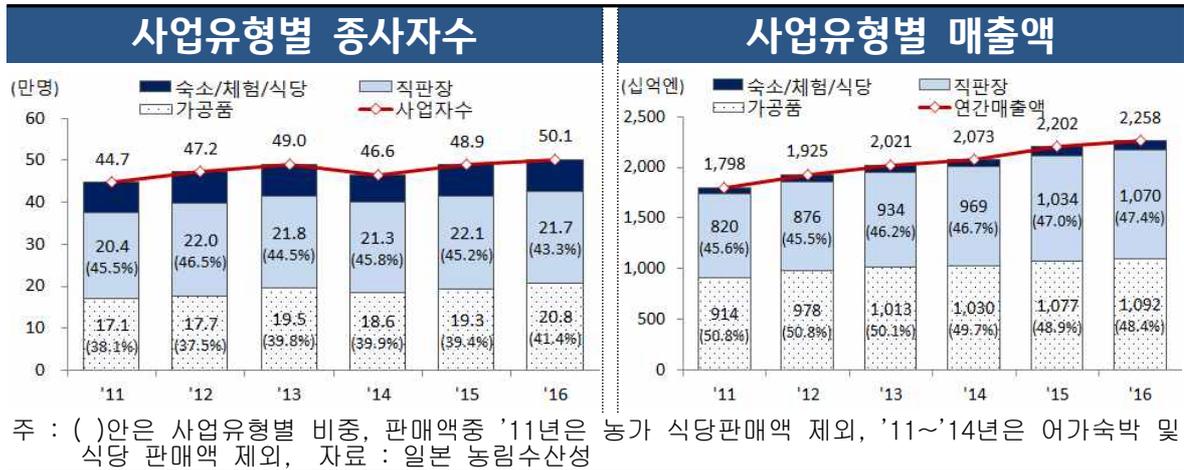
### □ 6차산업 종사자수 증가, 매출액은 더 큰 폭 증가

○ (종사자수) 사업시행 이후 5년간 연평균 2.3% 증가

- 사업유형별로 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음, 직판장 종사자 비율 소폭 감소

○ (매출액) 사업시행 이후 5년간 연평균 4.7% 증가

- 사업유형별 매출액 구성비는 직판장 비중이 크게 증가(5년전 대비 1.7%p ↑)



### □ 사업체가 대형화되며 고용유발효과가 높아지고 고용 안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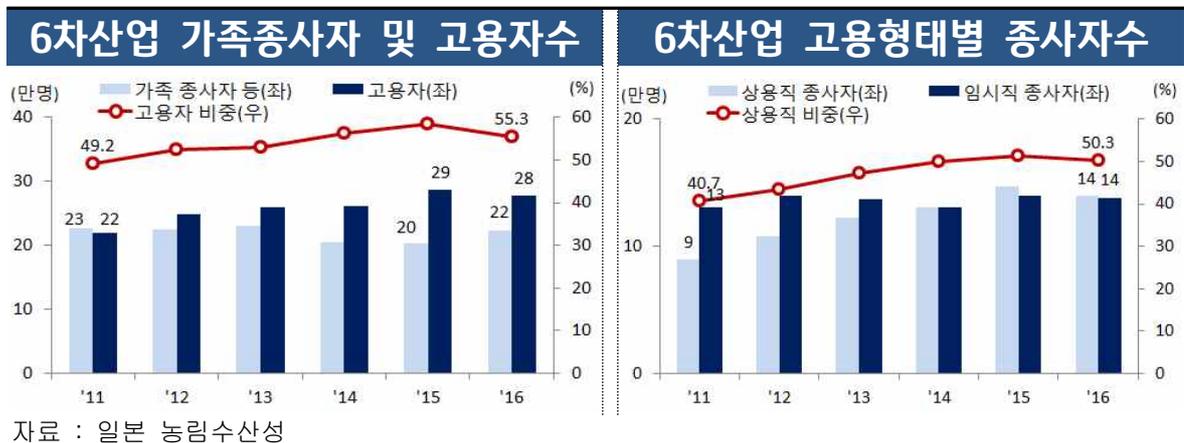
○ 6차산업화가 경과됨에 따라 영세업체는 감소하고 대형업체 증가

※ 매출액 1,000만엔(약 1억원) 이상 업체 비중(%) : 21.7('11) → 27.5('16), 5.8%p ↑

○ 그 결과, 가족 종사자수(0.3만명↓)는 감소한 한편 고용자수(5.7만명↑) 증가

※ 전체 종사자중 고용자 비중(%) : 49.2('11) → 55.3('16), 6.1%p ↑

-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증가(40.7%('11) → 50.3%('16), 9.6%p ↑) ⇒ 고용안정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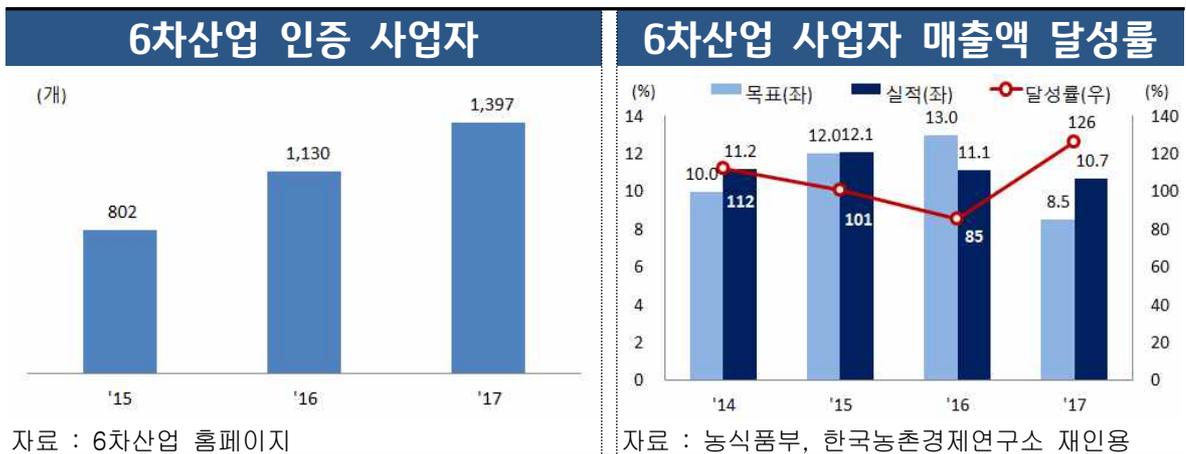


## IV.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 추진 동향

###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실태

#### □ '15.6월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6차산업화 법률을 기반으로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연구개발, 마케팅, 체험관광 등 다양한 6차산업 지원정책을 운영중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7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총 112개<sup>4)</sup>의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전남(29개), 경북(11개), 충남(6개) 등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수출, TV 홈쇼핑, 해외박람회 등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를 통해 6차산업 업체 지원·관리
  - (인증 대상)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지역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융복합화를 추진하려는 업체
  -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기한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 필요
  - 6차산업 인증 사업자는 '17년말 기준 1,397개 업체
  - ※ 지역별 인증업체(개, '17년) : 전북 215, 전남 202, 경북 167, 경기 162, 강원 150, 충남 127, 경남 124, 충북 118, 제주 89, 기타 43
  - 6차산업 인정 사업자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성장중



4) 6차산업 홈페이지(www.6차산업.com)에 공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기준

## □ 정부 자금지원은 ①보조금 ②융자금 ③출자금(정부+민간)로 구분 가능

- (보조금) 농식품부 보조금 예산<sup>5)</sup>중 6차산업화 관련 보조금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은 연간 57.1% 증가한 313억원('15~'17년)



- (융자금) '14년부터 농식품부는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자금 융자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보조금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중

- (대상)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전부 국산품 사용이 원칙)
- (내용) 저금리(연 2% 고정) 대출로 업체당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운영자금 지원

- (출자금) 농식품모태펀드중 6차산업화 지원 목적의 자펀드는 누적('10~'17년)으로 5개\*, 현재 운용중인 펀드는 2개, 200억원 규모

\* 펀드명 : 엘엔에스 농식품 6차산업화 투자조합('14.1~'17.7), 센트럴생거진천 농식품 투자조합('15.1~'18.7), Eco-MGI 6차산업화 투자조합('15.1~'19.9), 블루 6차산업화 투자조합('16.8~'20.8, 조기해산 '17.7월), 패스파인더 6차산업화 투자조합('17.8~'21.8)

## □ 6차산업 관련 예산(농식품부 예산 기준)은 아직 편성비중이 다소 낮은 편 ('17년 기준) ☞ 참고2(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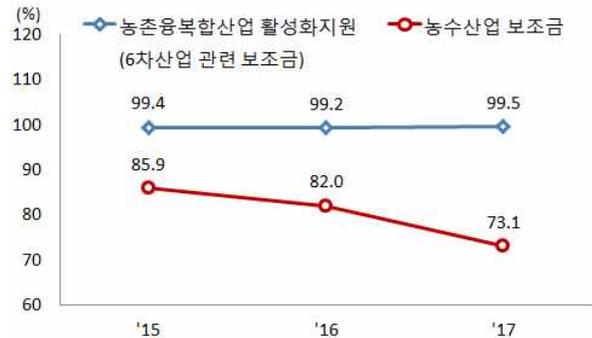
- (보조금, 313억원) 농식품부 전체 보조금 예산(6.3조원)의 0.5%
- (융자금, 300억원) 농식품부 전체 융자 예산(2.9조원)의 1.0%
- (출자금, 500억원('10~'17년, 누적)) 농식품모태펀드 전체 누적결성액(8,205억원)의 6.1%

5) 이하 정부지원금은 농림축산 부문의 예산(보조금의 92.5%)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예산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세 부내용을 작성하였음

## □ 농어촌 관련 지원은 정부자금이 중심이 되지만, 정부중심 자금 증가는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

### ○ (보조금) 예산 배정 및 운영에 비효율성 문제 제기

- 금융수요 파악 미흡으로 예산 집행률 저하, 반면 자금수요가 높은 6차산업 관련 보조금은 예산 편성을 확대할 필요
- 또한 불필요한 사업비용 정산, 사업추진 없는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절한 수급 문제 발생 가능<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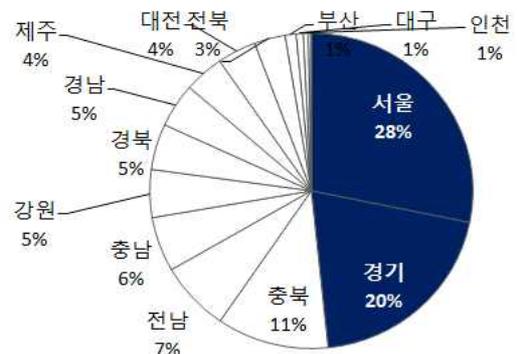
(농어촌 보조금 집행률 비교)

### ○ (융자금) 진입장벽이 높고,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문제 발생

- 대출심사시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요구로 주로 전문·대형 농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 자금 융자시 기존 정책자금(보조금 및 융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대출정보 공유 미비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음

### ○ (출자금) 수도권 투자쏠림 현상과 6차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 펀드운용사가 서울·경기지역에 주로 소재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의치 못한 상황
- 6차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에 실패(만덕식당<sup>7)</sup>한 '블루6차산업투자조합'은 결성한지 1년도 못되어 조기 해산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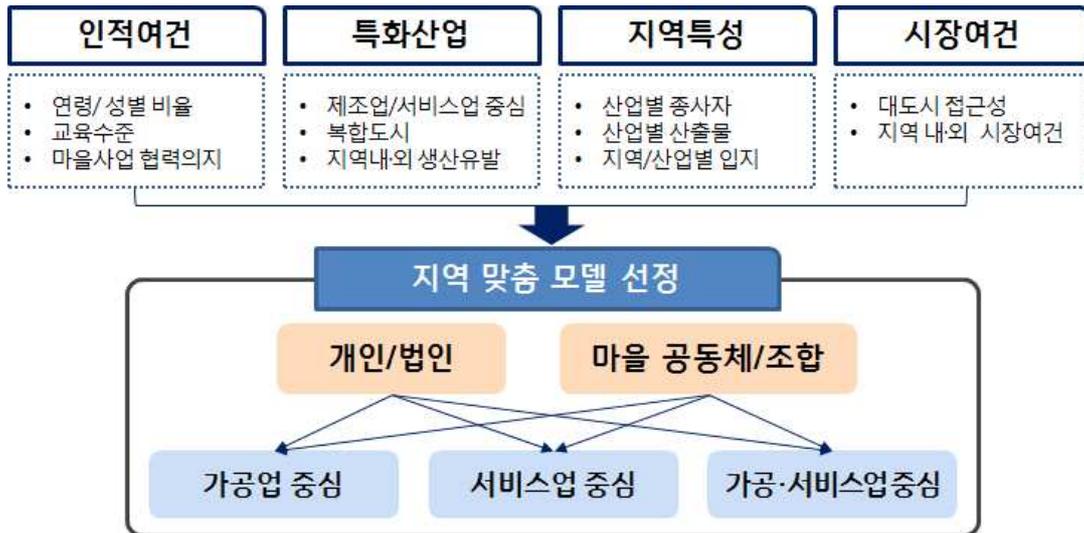


(지역별 농식품 펀드 투자실적)

6) 박준기, 허주녕,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2015)' 는 예산의 기획·배정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집행·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배정 및 사후관리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7) 만덕식당 전환사채(CB)에 20억원을 투자('16.9월)했으나, 투자금이 사업자 개인 용도로 유용되며 부실 발생

## V. 지역별 비즈니스 모델

□ 성공적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



○ (인적여건) 귀농·귀어인 등 젊은 세대 유입 등 6차산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점검 ☞ 참고3(P17)

⇒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에 귀농·귀어 인구 유입이 많음

○ (특화산업) 지역/산업별 입지계수\*로 특화산업 점검 ☞ 참고4(P17)

\* 산업별로 산출물 규모가 상이하 지역별 특화산업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지역/산업별 입지계수 =  $i$ 지역의  $j$ 산업에 대한 산출액/ $i$ 지역내의 총산출액)/(전국  $j$ 산업의 산출액/국내 총산출액)으로 1보다 크면 해당산업에 특화된 것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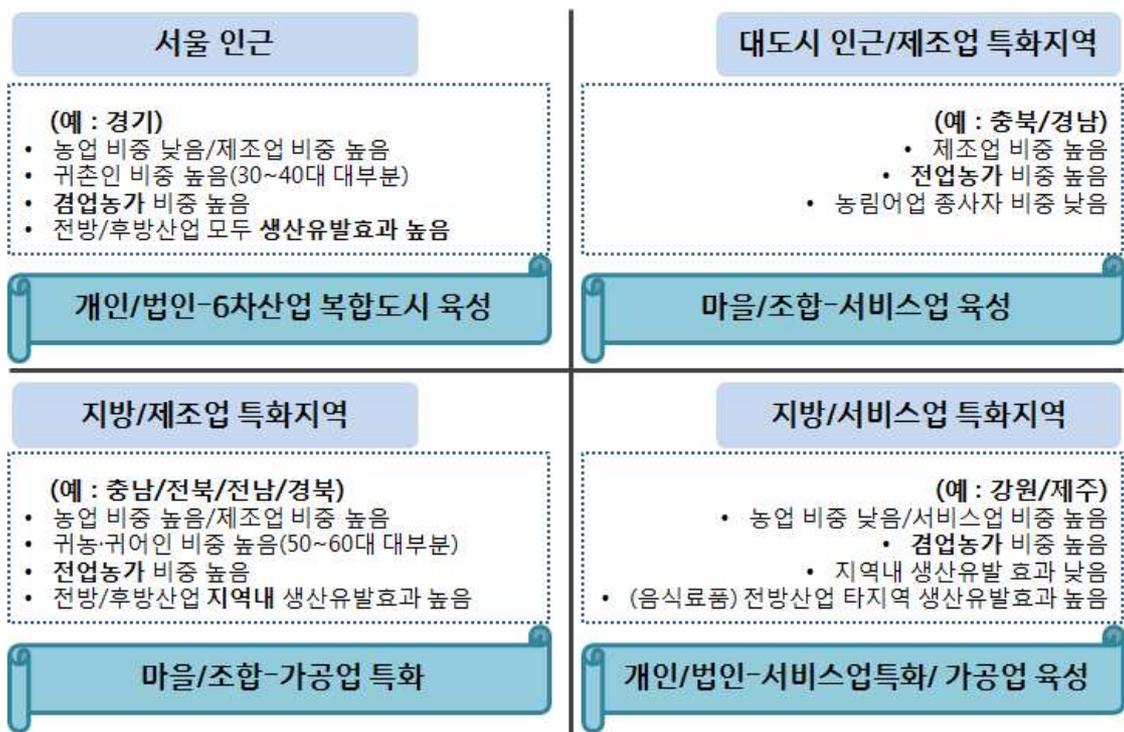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1차산업과 2차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강원,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에 특화

○ (지역특성) 지역별 취업자수, 산출물 비중 분석을 통해 지역별 산업 구조 특성을 분석 ☞ 참고5(P18)

⇒ 전남(23.9%)을 비롯 경북(17.9%), 전북, 충남, 제주, 경남, 강원 등 지역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음 \* 전체 취업자중에서 10% 이상 - 반면, 산출물은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제주, 강원을 제외하면 지역 전체 산출물 중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2~3% 수준)은 낮음

- (시장여건) 대도시 인접성,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한 뒤, 6차 산업과 연관된 농림어업, 음식료품(제조업), 도소매/음식점·숙박업(서비스업)의 지역내·외 생산 과급력을 분석 ⇨ 참고6(P19)
  - ⇒ 경기, 충북, 제주 등 대도시에 인접하거나 관광지는 타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해 타지역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높음
    - 반면, 제조업 특화지역은 지역내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 (사업자 형태) [개인/법인] vs [마을공동체/조합] 중 적합한 형태<sup>8)</sup> 검토
  - (개인/법인 중심) 도·농 교류형, 사업경험자 보유(겸업농가), 수익성 위주, 참여연령이 낮고, 참여자가 소수인 경우
    - ⇒ 서울인근, 지방/서비스 특화지역(관광지역) 등에 적용 가능
  - (마을/조합 중심) 지역 개발형, 사업경험자 미보유(전업농가), 공익성 위주, 참여연령이 높고,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
    - ⇒ 지방/제조업 특화지역에 적용 가능

##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4가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sup>9)</sup>



8)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R&D -농업농촌 6차산업 혁신모델사업단 최종보고서- 참조(2017)

9) 본문에서는 심플한 모델링을 위해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지만, 4개로 분류된 지역도 특성이 상이하고, 지역내 마을의 개별 환경도 다르므로 개략적인 인적, 지리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분류임을 참고하길 바람

## ① (서울 인근) 개인/법인 - 6차산업 복합도시 육성

- 전원생활이 목적인 젊은 귀촌인(30~40대)이 많고, 서울과 인접하고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내·외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커서 산업간/지역간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 (예) 경기
  - 인근 지역의 경우 전방산업(농수산물 : 충북, 충남, 강원 등)과 후방산업(도소매 : 서울) 생산유발효과가 높음
- ⇒ 1-2-3차 산업 모두 육성하기 좋은 환경,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뒤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sup>10)</sup>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산-가공-외식/체험을 융복합하는 복합 사업체 육성

## ② (대도시 인근/제조업 특화지역) 마을/조합 - 서비스업 육성

-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농어촌은 전업농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 등의 한계로 가공식품의 다변화를 도모하기는 한계가 있음 (예) 충북/경남
- ⇒ 소비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대도시 인접/제조업 발달)을 활용하여 마을단위로 외식/체험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

## ③ (지방/제조업 특화지역) 마을/조합 - 가공업 특화

- 귀농·귀어인이 많고 대도시와 떨어져 있으며, 음식료품 가공업의 지역내 전방산업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편 (예) 충남/전북/전남/경북
- ⇒ 귀농·귀어인의 다양한 직무경험·전문지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다각화해 니치마켓을 공략하고, 마을/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한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최종 소비자와 거리를 좁힐 필요

## ④ (지방/서비스업 특화지역) 개인/법인 - 서비스업 특화/가공업 육성

- 관광지 특성상 도·농 교류가 활발하고 겸업농가 비중이 높아 마을 단위 사업은 쉽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 (예) 강원/제주
- ⇒ 관광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1차산업과 연계한 외식/체험/숙박 사업 등은 활성화 시키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비교적 취약한 가공업 분야를 육성하여 지역내 생산유발효과를 높일 필요

10)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을 의미, 북미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 '지산지소' 운동 등 지역 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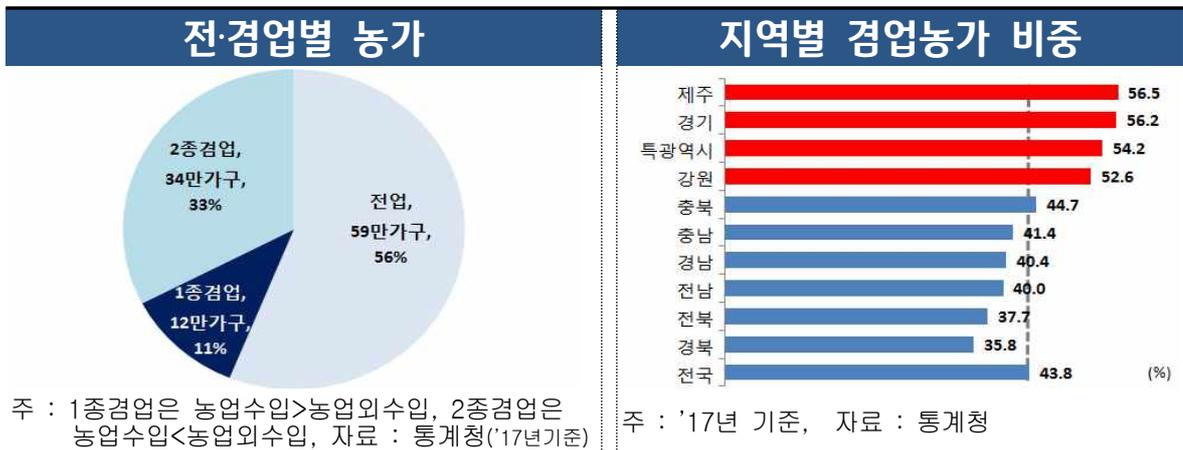
## VI. 시사점

1

### 정책 제언

#### ① 6차산업 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

- 우리나라 전체 농가중 본업인 농업 이외 제조업, 도소매 등을 겸업 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44%로 아직 6차산업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 6차산업 종사자는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



- 그러나 6차산업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 6차산업 인증을 받더라도 보조금(융자) 신청시 가산점을 주는 것 외에 우대사항이 없어 인증제도 확산이 더딘 편

[참고] 일본의 경우 종합화 계획사업 인증을 받은 업체만 융자(상한액 개인 : 5천만엔, 법인·단체 : 1억 5천만엔) 및 농림어업 펀드(A-Five) 투자 신청이 가능

- 6차산업 인증제를 확대하여 사업자 데이터 구축을 강화할 필요
  - 보조금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방향 및 개선사항도 도출 가능

#### ② 보조금 중심에서 탈피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 2인 중심의 소형 농어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1차 생산자 중심의 6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은 필수불가결하나,
  -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은 여전히 보조금 중심으로 보조금(9.5조원, '17년)이 농식품펀드의 정부출자금액(600억원)의 158배 수준

- 농림수산업자에 머물지 않고 융복합 사업체(6차산업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중심의 금융에서 탈피할 필요
  - 1차산업자가 2차, 3차산업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경영애로에 대한 자문을 얻고 사업계획서를 평가받을 수 있는 펀드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생력을 높일 필요

[참고] 일본의 6차산업자 투자 전문펀드(A-Five)는 투자자 선정단계에서 지자체와 매칭되는 네트워크를 구성

### ③ 지역에 필요한 니즈를 우선적으로 고려

- (Top-down → Bottom-up 방식) 6차산업화를 비롯해 농림수산 분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과 농어촌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움
  - (Bottom-up 의견 수렴 사례 : 완주공동체지원센터<sup>11)</sup>)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과 수익 창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사업 발굴 및 육성 ⇒ 마을단위 비즈니스 모델 전개의 본보기

### ④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 융복합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복잡성을 이해할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교육뿐 아니라 외부인재 영입도 중요
- 귀농·귀어인 프로그램을 6차산업과 연계하여 인재 영입에 활용
-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문화·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
  - (삶의 질 개선) 지역 도서관, 교육·문화시설 등 확충을 통해 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 모색이 중요

### ⑤ 스마트팜 등 ICT 도입

- ICT 기술 도입으로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보충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

11) www.wanjucb.org

## ⑥ 농업기업의 6차산업화뿐 아니라 농상공 융합도 고려할 필요

- 교육을 통해 1차산업자를 6차산업자로 육성하는 것은 한계
  - 각 산업에는 각기 다른 경영노하우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융복합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 존재
- \* 황재희·이성우('16년) 연구에 따르면 종합형 보다는 단일결합형이 소득증대 측면에서 효율적
- 일본도 1차산업자의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니즈파악에 부족하고 가공기술도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도태되는 사례 속출
  - 6차산업 인증후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 ※ 6차산업 인증후 경상이익률 변화% : 상승 44.7, 하락 55.2, 변화없음 0.1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11년)을 활용하여 농어업·공업·상업 융합기업을 통해 6차산업화의 활로를 찾는 것도 방법
  - 최근 농공상융합기업의 형태가 농어업자 중심의 융합화 비중이 증가 (24.0%, '13년 → 40.3%, '17년)하는 추세 ☞ 참고7(p20)
  - 일본도 1차생산자 중심의 6차산업화의 성장한계를 인식하고 농공상 융합기업이나, 1차산업자 중심의 융합형태(출자비율 50% 이상 등)가 유지 가능한 6차산업화 2.0 등을 성장 해법으로 제시 ☞ 참고8(p20)

## 2 금융기관 제언

### ① 6차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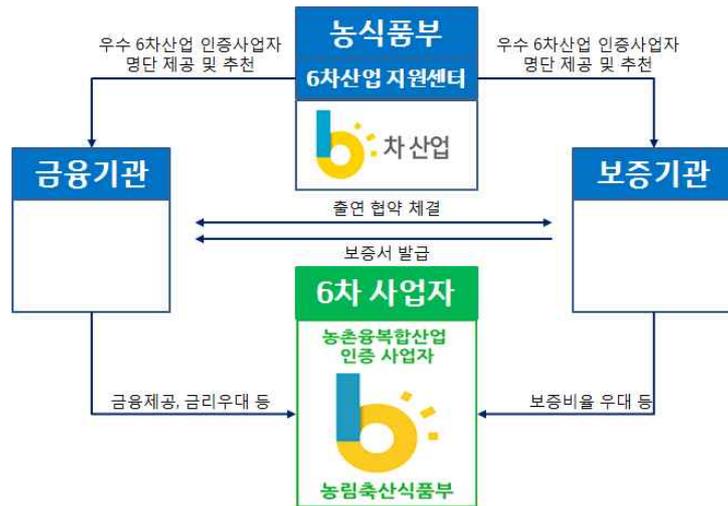
- 6차산업을 농수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은행의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선행될 필요
- 농림어업자는 시중은행의 주된 고객층이 아니지만, 2~3차산업까지 겸하는 융복합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은행의 잠재고객

### ② 금융지원 동반자 역할 부각

- 금융기관은 융자 및 투자 등을 통해 6차 사업자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용자)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6차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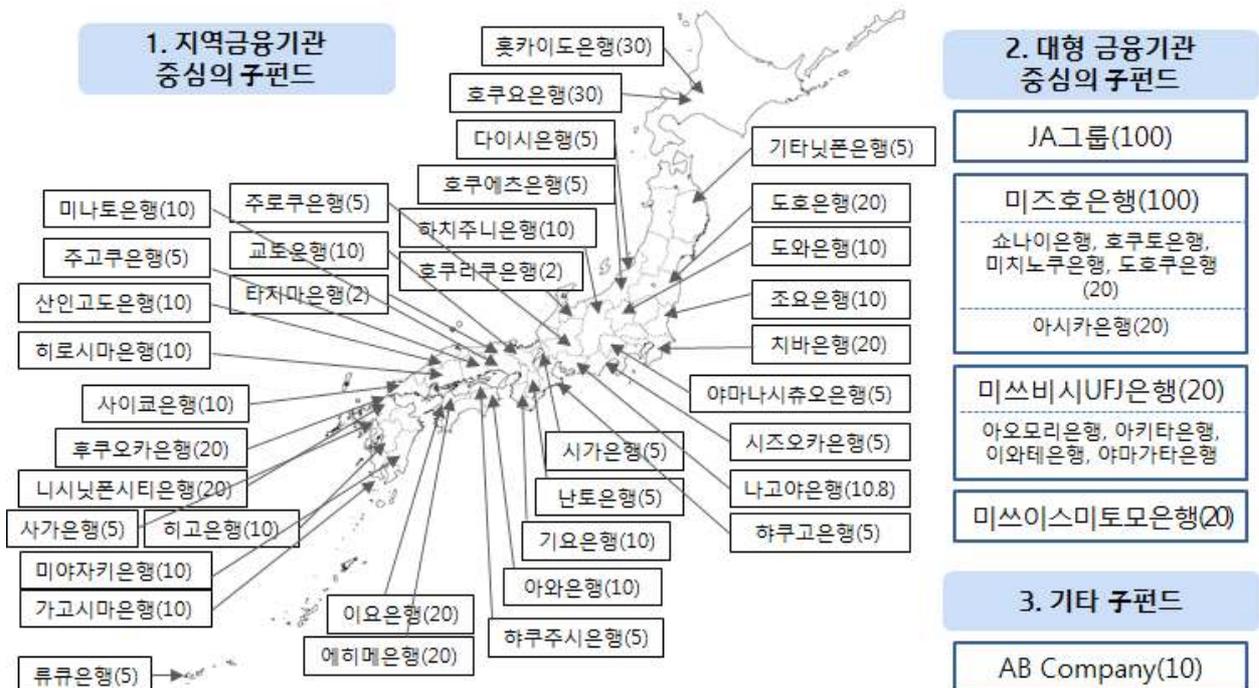
- 6차 사업자의 금융니즈가 확대될 경우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도 검토할 필요



○ (투자) 일본 대형금융기관처럼 6차산업 펀드 등에 출자도 검토 가능

※ 자펀드 현황(억엔, '18.10월말 기준) : 43개 펀드총액(639.8), 지방 금융기관(389.8), JA그룹(100), 미즈호은행(100), 미쓰비시UFJ은행(20), 미쓰이스미토모은행(20), AB company(10)

< 일본의 A-FIVE의 자펀드 현황('18.10월기준) >



주 : 미즈호은행은 지방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복수의 자펀드 설립, 펀드 수 2개, 단위 : 억엔,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참고1] 6차산업의 세부 유형

### □ (수익모델 기준)

1차산업 중심	생산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1차산업)이 핵심이고 가공서비스는 부가사업</li> <li>· 2차, 3차산업은 생산 활성화를 돕기 위한 보조산업 (사례) 홍성 문당 친환경 농업마을, 옥천 장수마을</li> </ul>
2차산업 중심	가공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가공상품 개발이 핵심</li> <li>· 인터넷 위탁판매 등 다양한 판로 확보 (사례) 경기 양평 다물한과, 전북 임실치즈마을</li> </ul>
3차산업 중심	유통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의 공간적 연계시스템 구축</li> <li>· 로컬푸드 직판장 등 매장 운영 역량을 갖춘 (사례) 칠곡 농부장터, 전북 완주 로컬푸드</li> </ul>
	관광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가공과정에서 소비자가 참여</li> <li>· 지역내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사례) 순창 고추장 마을, 용인 호박등불 마을</li> </ul>
	외식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가공, 외식이 동시에 이루어짐</li> <li>· 식재료, 맛의 스토리텔링화 (사례) 서산 꽃송아리 마을</li> </ul>
	치유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 및 약용 농산물 재배 및 가치 연계</li> <li>· 원예, 심신치료 등 관련 전문성 강화 (사례) 하동 땅번지 마을 등</li> </ul>

### □ (사업추진체계 기준)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가공 및 서비스업 등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li> </ul>
산업제휴 네트워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은 생산에 전문화하고 농업에 기반한 가공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은 관련 상공인과 협력하여 추진</li> </ul>
복합형 (다각화형 네트워크형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지역 내에서 농업인의 사업 다각화형과 산업제휴 네트워크형이 동시에 연계를 가지며 추진되는 형태 (사례) 평창 봉평메밀</li> </ul>

## [참고2] 농식품부 농어촌 보조금 지원관련 예산지출 계획

- 농림축산 부분 예산(보조금의 92.5%)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예산지출 계획을 보면 **보조금은 6.3조원('17년)으로 총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

	2015년		2016년		2017년	
총지출	140,431	(100.0)	143,681	(100.0)	144,887	(100.0)
보조금 소계	65,441	(46.6)	66,154	(46.0)	63,086	(43.5)
경상보조	33,327	(23.7)	33,385	(23.2)	32,244	(22.3)
자본보조	32,114	(22.9)	32,769	(22.8)	30,842	(21.3)
융자	30,804	(21.9)	29,771	(20.7)	29,056	(20.1)

주 : ( ) 안은 비중, 경상보조금 : 운영비 보조, 직불금, 면세유 복지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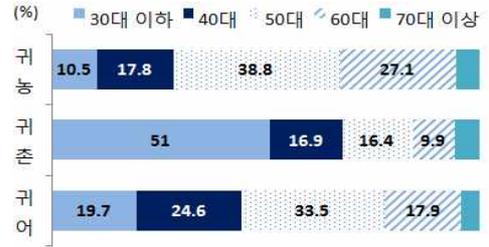
자본보조금 : 재산 구입 보조, 시설물, 자재지원 등으로 관리연한 전 매각시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서 분류하여 재구성

**[참고3] 인적여건 : 귀농어·귀촌 관련 통계**

- 우리나라 농가(67.0세), 어가(63.7세)는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으나, 귀농어·귀촌 인구는 대부분 50대 이하로 비교적 젊은 편

< 귀농어·귀촌 인구비율(%) >



-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인터넷 등에 능숙한 젊은 귀농·귀어 인구 유입이 많아 적극 활용할 필요

< 시도별 귀농어·귀촌 가구현황(%) >



출처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2017)

**[참고4] 특화산업 : 지역/산업별 입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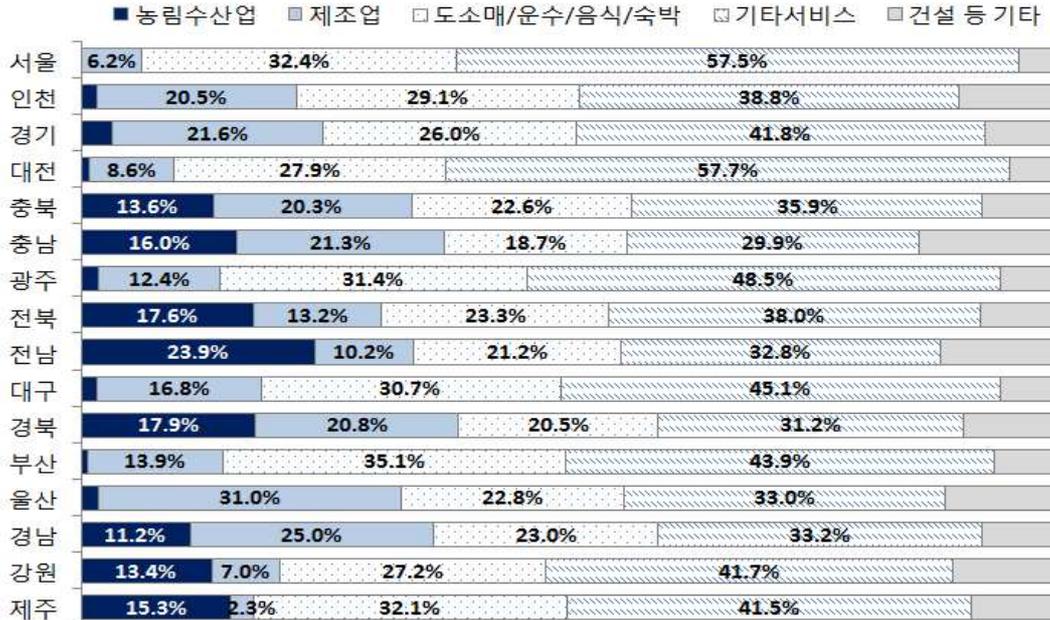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건설, 유틸리티 제외)		
			음식료품		도소매	음식점/숙박
서울	0.05	0.20	0.15	2.17	2.65	1.44
인천	0.18	0.83	1.19	0.98	0.69	0.91
경기	0.54	1.05	1.05	0.94	0.89	1.04
대전	0.16	0.60	1.68	1.57	1.25	1.77
충북	1.77	1.27	3.12	0.65	0.49	0.88
충남	1.61	1.47	1.35	0.35	0.24	0.48
광주	0.25	0.94	0.83	1.15	1.03	1.34
전북	3.66	1.02	3.28	0.87	0.60	0.98
전남	2.30	1.46	0.78	0.37	0.24	0.44
대구	0.28	0.75	0.75	1.37	1.48	1.61
경북	2.02	1.45	0.85	0.42	0.30	0.62
부산	0.67	0.66	0.83	1.43	1.43	1.63
울산	0.07	1.72	0.17	0.24	0.19	0.33
경남	1.56	1.26	1.48	0.56	0.48	0.81
강원	3.24	0.47	2.64	1.28	0.93	2.33
제주	8.89	0.15	1.74	1.56	1.25	2.45

주 : 지역/산업별 입지계수 = (i지역의 j산업에 대한 산출액/i지역내의 총 산출액)/(전국 j산업의 산출액/국내 총산출액), 자료 : 한국은행 지역 산업연관표(2013)

[참고5] 지역특성 : 지역/산업별 취업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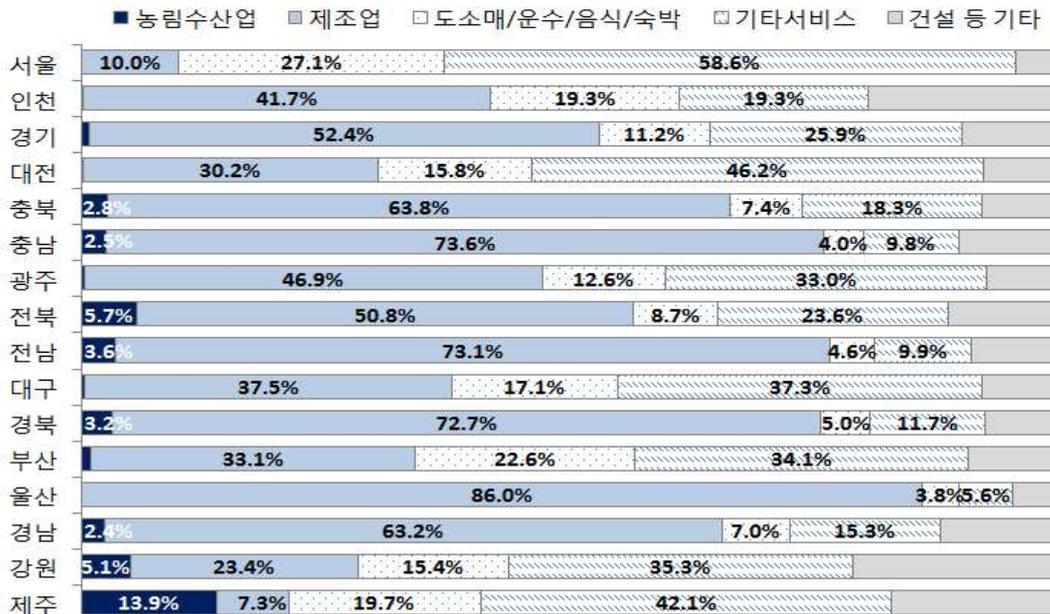
- (취업자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은 전남(23.9%), 경북(17.9%), 전북(17.6%), 충남(16.0%), 제주(15.3%), 강원(13.4%), 경남(11.2%) 순

< 지역/산업별 취업자수 비중 >



- (산출물) 반면, 제주(13.9%), 강원(5.1%)을 제외한 제조업 특화지역은 제조업 산출물 비중이 높아 지역내 농수산 산출물 비중은 낮은 편

< 지역/산업별 산출물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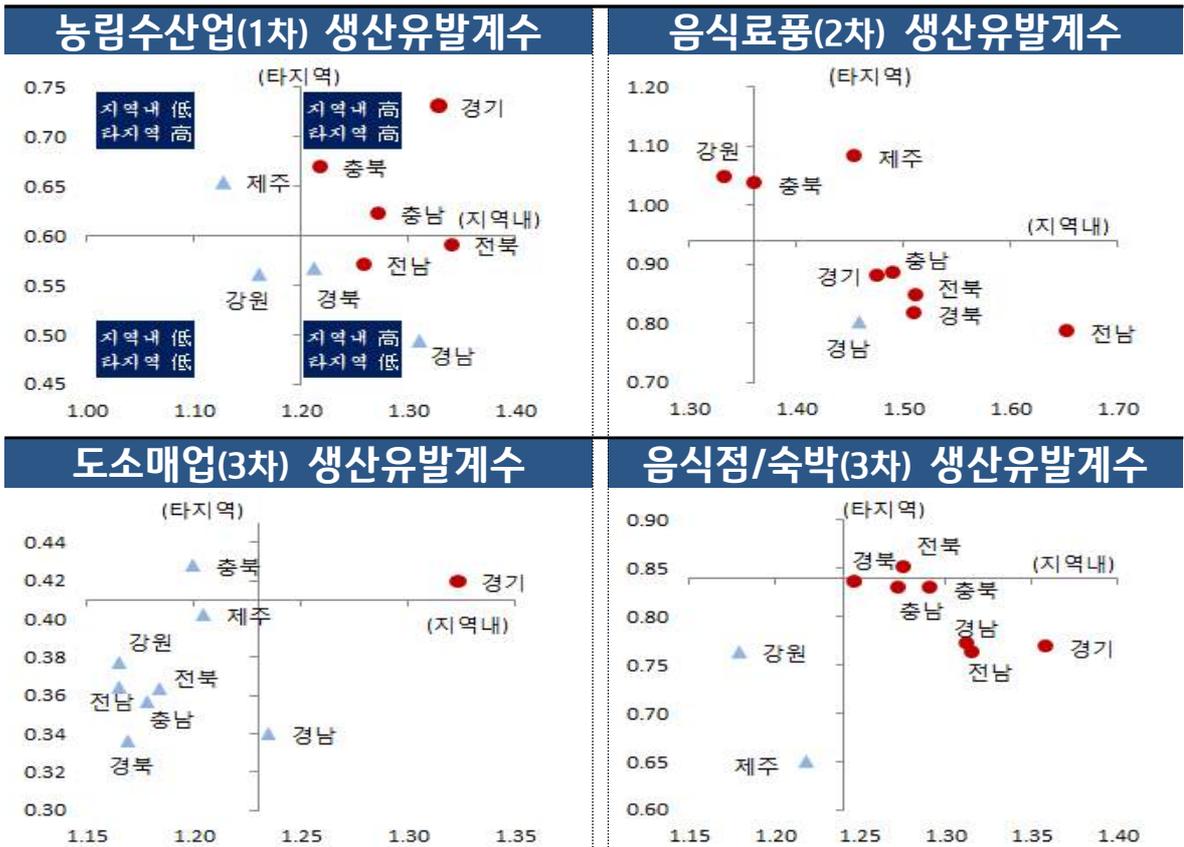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지역 산업연관표(2013)

< 지역/산업별 취업자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율 >

	취업자유발계수(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율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서울	5.0	7.0	11.7	16.6	1.7	2.3	1.9	2.1	45.6%	17.3%	43.5%	38.7%
인천	33.2	2.9	18.8	17.8	1.8	1.9	1.7	2.1	49.6%	12.5%	54.8%	36.9%
경기	28.9	9.5	18.3	19.1	2.1	2.4	1.7	2.1	45.5%	16.1%	54.4%	35.2%
대전	36.7	3.6	20.7	17.3	1.6	2.2	1.7	2.1	61.1%	25.9%	57.8%	35.2%
충북	35.6	9.8	25.8	22.3	1.9	2.4	1.6	2.1	54.8%	14.8%	61.7%	36.5%
충남	28.0	11.2	25.4	20.7	1.9	2.4	1.5	2.1	53.7%	14.0%	67.0%	36.9%
광주	42.7	6.1	23.0	19.6	1.7	2.3	1.7	2.1	60.1%	24.2%	57.3%	35.5%
전북	30.5	12.1	28.7	24.4	1.9	2.4	1.5	2.1	52.2%	12.4%	66.5%	36.4%
전남	30.3	17.7	29.5	24.8	1.8	2.4	1.5	2.1	54.7%	11.5%	67.3%	37.7%
대구	39.0	8.3	20.4	20.4	1.8	2.4	1.7	2.1	54.1%	14.2%	55.0%	35.4%
경북	31.0	14.5	27.2	22.2	1.8	2.3	1.5	2.1	57.9%	16.4%	68.6%	37.1%
부산	7.0	7.2	18.7	18.5	1.7	2.3	1.7	2.1	46.1%	15.7%	58.8%	37.5%
울산	36.2	4.8	18.3	17.1	1.8	1.9	1.6	2.1	54.6%	10.3%	60.4%	35.2%
경남	30.7	10.4	23.5	22.5	1.8	2.3	1.6	2.1	55.0%	17.1%	64.1%	36.5%
강원	35.3	11.4	27.2	22.4	1.7	2.4	1.5	1.9	61.9%	17.7%	66.5%	45.1%
제주	14.6	9.3	23.7	21.6	1.8	2.5	1.6	1.9	54.4%	10.2%	63.3%	49.9%
전지역	29.0	9.1	22.6	20.5	1.8	2.3	1.6	2.1	53.8%	15.4%	51.5%	37.4%

주 : 취업자유발계수는 자본 10억원 투입시 취업자수, 생산유발계수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에서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그로인해 지역내 및 타지역에 파급되는 생산단위, 자료 : 한국은행 지역 산업연관표(2013)

[참고6] 시장여건 : 산업별 지역내/타지역 생산유발계수



주 : 동근점은 생산유발계수가 동산업내 평균보다 높고 세모점은 평균보다 낮은지역, 각축은 특정산업의 전국 평균, 특별시 제외, 자료 : 한국은행 지역 산업연관표(2013)

### [참고7] 농공상용합기업 개념 및 지정 현황

- (개념) 농업인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유통하거나, 가공·유통업의 중소기업이 농업인이나 생산단체와 협력하는 경우

< 유형별 농공상용합기업 지정 현황(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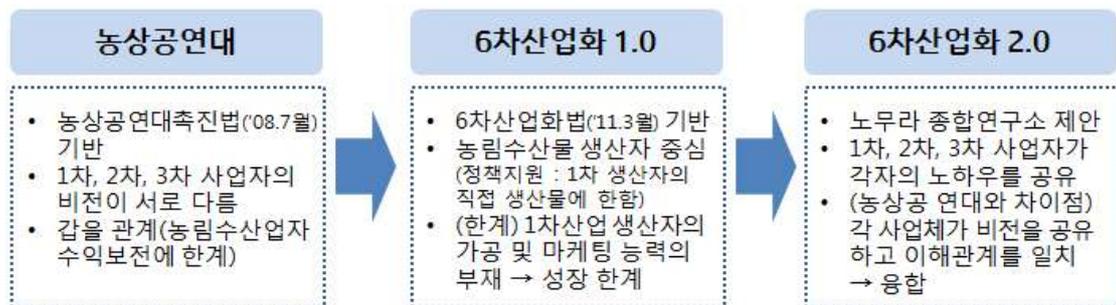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 경영형		공동 출자형		계
'13년	225	(75.0)	72	(24.0)	3	(1.0)	300
'14년	215	(71.7)	81	(27.0)	4	(1.3)	300
'15년	216	(67.3)	101	(31.5)	4	(1.2)	321
'16년	219	(61.5)	135	(37.9)	2	(0.6)	356
'17년	229	(59.1)	156	(40.3)	2	(0.5)	387

< 규모별 농공상용합기업 지정 현황(2016년 기준, 개, %) >

1억원 미만	1~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계
52 (14.6)	148 (41.6)	109 (30.6)	23 (6.5)	24 (6.7)	356

### [참고8] 일본의 6차산업화 2.0

- (6차산업화 2.0 추진 모델)



- ① 농림수산업자(농업법인)과 2차·3차 사업자에 의한 '6차산업융합체'
  - 1차 사업자 중심으로 2차·3차 사업자의 공동출자를 통해 합병회사 설립
  - 이 경우 갑을관계 문제에서 자유롭도록 1차 사업자의 규모가 2차·3차 사업자와 대등함을 유지할 필요 ⇒ 농업법인 규모만 가능
- ② 지역 농협·수협이 주체가 된 '6차산업융합체'
  - 농협·수협이 주체가 되어 '6차산업융합체'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 ⇒ 소규모 생산자 참여가 가능
- ③ 제 3섹터\*를 활용한 '6차산업융합체'
  - \* 지역개발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체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품이나 판매를 담당하던 기존의 제 3섹터가 그 시설·자본을 바탕으로 2·3차 사업 노하우를 갖춘 사업자(인재) 영입으로 경영능력을 향상 ⇒ 6차산업화 융합후 민영화

## [ 참고문헌 ]

- 황재희, 이성우, “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효과(‘16년)”, 농촌경제
-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14.12월)”, (사)한국농업경제학회
- “6차산업 창업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15.8월)”, 산업연구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18.6월)”, 국회입법조사처
- “농식품산업 투자 초기시장형성 및 농식품모태펀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17.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업 6차산업화」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과제(‘14.1월)”, 농협경제연구소
-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15.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15.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농촌 6차산업 혁신모델 사업단 최종보고서(‘17.9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14.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14.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15.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6次産業化の手引き」～失敗事例を踏まえて～(‘17.9월)”, 東北農政局
- “6次産業化/連帶ビジネス～「6次産業化融合体」による 「6次産業化2.0」の推進～”, 野村総合研究所
- “農林漁業を成長産業へ導く 「6次産業化2.0」(‘16.10월)”, 野村総合研究所
- “アグリ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日本銀行, 金融高度化センター